

정부·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책 몰라서 못쓴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경영환경 애로 조사

48% “이용한 적 없다”… 정보 접근성·실효성 부족 77%

절반 이상 자금사정 나빠… 소비축진·대출지원 요구 커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절반 가량이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보 접근성 부족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

다는 지적이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애로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정부·지자체 지원 소상공인 정책 이용 여부에 대해 47.7%가 ‘이용한 적 없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는 정보 접근성 부족이 4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실효성 부족(32.9%), 신청 요건 절차의 진입 장벽(25.2%) 등 순이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정책 홍보 및 제도 정비,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년 대비 현재 경영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9.0%가 ‘악화했다’고 답했으며 ‘호전됐다’는 응답

은 9.0%에 그쳤다.

경영 상황 악화의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내수 부진(경기침체)이 71.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판로 개척 및 매출 부진(36.2%), 물가 상승,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20.3%)이 뒤를 이었다.

현재 자금 사정이 나쁨(매우 나쁨 16.7% + 다소 나쁨 34.0%)이라는 응답도 50.7%를 차지. 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매우 어려운 수준임을 시사했다.

자금 조달 방안은 금융권 대출(1.2금융권)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 활용(23.7%) 순

이었다.

자금 조달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출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을 짊어 54.3%를 기록했다. 그 외에도 대출 조건 충족이 어려움(29.0%), 정책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26.7%) 등 정책자금 이용 관련 애로도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 지원 분야로는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촉진 3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 및 대출 지원 강화(33.7%)가 뒤를 이어 두 정책이 전체 응답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또 정책 지원 시 가장 필요한 지원 형태로는 직접 자금 지원(정책자금 대출, 경영안정 자금)이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지자체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바람이 ‘금융 지원 확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동석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역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터널과 내수 한파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섬세한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대영 기자 sdw0918@

장기 실업자 11만9000명 4년만에 최다

고학력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영향

6개월 이상 구직상태에 머물고 있는 장기 실업자가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가데이터터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11만9000명으로, 2021년 10월(12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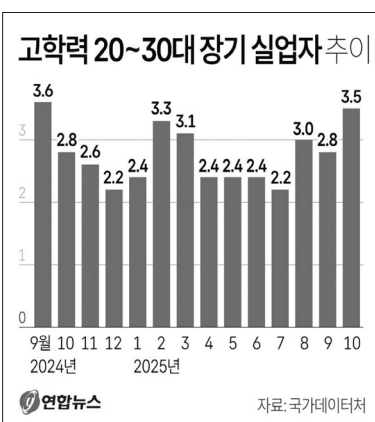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0년 5월~2021년 12월 10만명을 웃돌았고, 이후 대체로 10만명 아래에 머물다가 지난달 급증했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65만8000명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율은 18.1%였다. 같은 10월과 비교할 경우 1999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1999년 10월(17.7%)보다도 높았다.

장기 실업자 비율은 지난 4월 9.3%로 한 자릿수였지만, 5월 11.4%로 두 자릿수로 올라선 뒤 6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년째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닌 고학력 청년층이 장기 실업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년째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닌 20~30대 중 장기 실업자는 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



난해 9월(3만6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다.

연령대를 5세 단위로 보면 25~29세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총 1만9000명이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뒤 장기 백수 상태로, 지난 3월(2만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청년 ‘쉬었음’ 계층은 줄었지만 고학력 청년 장기 실업자가 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쉬었음은 지난달 4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줄었다.

최근 6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포기할 경우 쉬었음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쉬었음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송대영 기자 sty1235@연합뉴스



농협 전남본부, 어린이 김장 담그기 체험교실 운영 농협 전남본부는 ‘김치의 날’(11월 22일)을 맞아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심친심’ 운동 확산을 위한 어린이 김장 담그기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화원농협 김치체험학습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 김장비용 ‘33만8500원’…전년비 2.11%↑

배추 가격 강세…전라·남해안 내달 김장 적기

올해 전통시장에서 김장을 준비하려면 지난해 보다 2.11% 오른 33만85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사)한국물가정보가 발표한 2025년 김장비용 물가(국산품·4인 기준)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김장비용은 지난해 보다 각각 2.11%, 1.21% 오른 33만8500원, 40만4280원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비용 차이는 6만5780원으로, 전통시장이 19.4% 더 저

렴했다.

올해 배추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 무·소금 등의 가격 하락세가 이를 보완하며 전체 김장비용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배추(20포기) 가격이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12만원으로 20.0% 올랐다. 총각무(3단)는 1만5000원으로 전년(1만3500원) 대비 11.1% 올랐고 쪽파(2단)는 전년(2만원) 대비 20.0% 오른 2만4000원이다. 생강(800g)은 8000원으로 지난해(7000원)

보다 14.3% 올랐다.

반면 작황이 좋은 무(10개) 가격이 지난해 3만원에서 올해 2만원으로 33.3%, 대파(2단)는 6000원에서 5000원으로 16.7% 각각 내렸다. 천일염(5kg)은 1만원에서 6000원으로, 새우젓(1kg)은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40.0%와 25.0% 저렴해졌다.

김장 적정 시기는 지역별로는 중부지방(서울·경기·충청)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초, 남부지방(전라·경상)은 12월 초에서 중순, 남해안 지역 등은 12월 중순 이후가 김장 적기로 예상된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양경제청, 정책자문위원회

투자유치 발전방안 등 논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2025년 제2회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내년도 투자유치전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발전방향, 비전 제시, 주요 시책 정책자문을 위한 자문기구다. 전략산업과 국제경제, 서비스, 기업인, 기업지원, 조선·해양, 개발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서는 올해 투자유치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했으며, 광양만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됐다. 또 이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저장시스템(BESS) 등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을 협의했다.

정용기 정책자문위원장(전남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은 “어려운 국내의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청이 14개 기업을 유치해 4조 8000억원의 투자금액을 실현하고, 7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자문위원들의 실효성 있는 정책조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경제청장은 “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의견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토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광양만권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워터린사워솔루션은 이렇게 다릅니다
 • 초미세녹물까지 차단하는 고성능필터 • 샤워용, 잔류하는 잔수를 자동배출
 • 휴대용, 여행용 대용량 필터유닛 • 자유로운 수압조절 및 절수기능

보다 더 나은 다름
 워터린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물처럼
 당신의 일상에 깨끗하게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곡로 399-18, (주)지엔비솔루션 · 전화 : 062-716-0999 / 팩스 : 062-716-0998 · 메일 : water-linn@naver.com